



心實愛世
攝信慈度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76. 4. 21. 43 (월간·년구독료 15만원)

東友會報

1993年(檀紀4326年)8月31日 第163號 (1)

발행인 黃明秀 主
편집인 金英煥 主
인쇄인 朴性主

東國大學校總同窓會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3층2호

전화 : 733-3991~3

FAX : 733-3992

우편대체 012328-31-0525677

은행지번호 7500891

제17대 회장에 黃明秀동문

“10萬 동문의 힘을 모아 新東國 건설할 터”



▲신임 黃明秀회장(左)과 전임 鄭在哲회장이 정기총회에서 꽃다발을 받고 동문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母校에 대형버스 1대 寄贈
黃회장 취임공약 실천 체육부서活用

本會의 제17대 회장에 黃明秀동문(53정치)이 추대됐다.

黃明秀동문은 지난 5월 15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참석이사 만장일치로 17대 회장에 선출된 후 이어 6월15일 열린 17차 정기총회에서 역시 만장일치의 박수로써 추대된 것이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黃明秀회장은 신임회장 인사를 통해 모교는 이 나라 발전에 이바지한 전통있는 私學 명문이라며 “만장일치로 선출해 준 오늘의 영광을 가슴에 간직하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같고 닦아 새 東國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발디딜 틈이 없었던 이날 정기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전임 정재철 회장의 노고에 감사하고 신임 황명수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끈끈한 동국애로 화기가 넘쳐 흘렀으며 특히 동창회기 인계인수와 모교 여학생회의 꽃다발 증정 때는 우리와 같은 박수로써 환호를 보였다.

1대 동창회장 韓龍雲선사로 부터 期수로는 17대, 동문으로는 6번째 동창회장으로 등재된 신임 黃明秀동문은 지난 53년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74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모교와 本會의 발전에 전력 투구 해 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총 1억1천7백10만원의 예산과 각종 사업계획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관련기사 11·12면>

지면안내

- 1면...총회 회보기사
- 2면...본회 기사
- 3면...지부지회 및 모교 기사
- 4면...회장단 프로필
- 5면...고문, 지도위원, 운영위원 명단
- 6면...동문 동정
- 7면...동문동정 및 인터뷰(이형집, 김만진동문)
- 8·9면...에베레스트등정기(박영석)
- 10면...화제의 동국인(정병락)
- 11·12면...정기총회 상보...화보

'東國發展' 17代 회장단 出帆

財·政·官界등 各界인사 40명 추대



▲사진은 황회장이 기증한 35인승 BUS시승식 직전

母校에 대형버스 寄贈

黃明秀 會長, 임원추대식서

황명수회장취임 및 임원추대식이 지난 7월14일 오후7시 엠베서더호텔 2층 볼룸에서 오복원이사장, 민병진총장등 학교관계자와 임원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추대식에서는 황명수회장이 정기총회에서 공약한 대형버스 1대 모교기증에 따른 기증서전달식을 가졌으며 고문, 부회장, 운영위원, 강사, 분과위원장에 대한 추대장 수여가 있었다.

황명수회장과 이지관고문에 대한 꽃다발 증정에 이어 각급 단위 임원의 추대가 있었으며 이어 인사말에 나선 황회장은 '상호간의 우의와 협력을 바

탕으로 동화회가 마음의 고향이 될것'이라며 학교발전을 위해 누구와도 힘을 결집시켜 동국과 국가발전의 주역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뒤 「신동국건설을 동반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수천(77행정·분회감사) 동문이 두건주(중요부형문화재) 7BOX 42병을 헌납했으며 임원추대와 상견례의 뜻으로 황명수회장이 직접행사비용을 전담했으며 MBC 개그맨 이경규(84연예) 단위 임원의 추대가 있었으며 이어 인사말에 나선 황회장은 '상호간의 우의와 협력을 바

사에李哲興(67법학),朴壽天(77행정·세원종합금융부장) 동문을 선임하는 한편 본會운영및 조직확장의 방안으로 총무, 재무, 체육, 장학, 홍보, 조직등의 6개분과위원회를 설치했다.

한편으로鄭在哲인원회장(52정치)와 함께 그동안 노교와 분회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文泰植(49사학·이주산업(주) 회장) 金聖涉(53정치·(주)대동 회장) 동문등 위원회동문들을 고문단에 추대했다.

<회장단 프로필 4·5면>

本會 사무국장에

金英煥 동문



本會 제 17대 黃明秀 회장체제의 출범에 따라 張秀正(67인학) 사무국장이 퇴임하고 후임에 金英煥(67정치) 동문이 지난 7월5일자로 임명됐다.

金英煥인원국장은 제학시절 한·일공육의교반대투쟁으로 복역하기도 했으며 71년 태평양 화력에 입사, 광주지점장, 부산지점장, 영업이사, 그룹회장 비서실장, 영업이사, 시판본부장등을 역임한 바 있다.

光州支部 자유회

광주동문회(회장·이상진·60법학)는 지난 7월 17일 여수에 있는 상임원에서 자유회를 가졌다.

새 회장에 洪起三 동문 東國文學會

東國文學會는 최근 모임을 갖고 새 회장에 洪起三 동문(66국문·모교교수)를 선임하는 한편 부회장에 시인 金圭和(69국문), 金正維(71국문), 아동문학가 정재봉(75국문) 동문을 각각 신선했다.

會 長 黃明秀(53정치)	朴翊柱(61경제) 상임
副 會 長 柳周馨(57농학) 수석	馬慶子(53국문) 신임
洪鳳來(53법학)	黃龍雲(54경제)
安재만(54국문)	李錫龍(57경제) 신임
金東正(57법학)	申庚林(59영문) 신임
南平祐(59경제)	張亨植(60정치) 신임
金在基(60경제)	禹順伊(60정치) 신임
韓根根(60정치) 신임	朴完一(62불교)
金勳基(61법학) 신임	朴殷奎(61정치) 신임
李衍澤(61법학)	鄭相永(61법학)
慎順範(61정치) 신임	韓永輝(61정치) 신임
金壽局(61정치) 신임	金榮島(62경제)
金北喆(62정치) 신임	李世亨(62국문)
金榮煥(62정치) 신임	李棟亨(63경제)
金在鎭(63정치) 신임	朴煥平(65사학)
申相斗(64법학) 신임	柳月誕(68불교) 신임
朴熙富(65법학) 신임	金瓊會(70영문) 신임
朴泰權(75정치) 신임	具滋善(81행문) 신임
梁昶植(78행문) 신임	車경훈(57정치) 해외·신임
金振發(64정치) 해외·신임	金우영(64영문) 해외·신임
金鍾漢(70사학) 수석·신임	李哲興(67법학) 신임
監 查 權錫忠(70정치) 수석·신임	金鐘文(71경제) 재무·신임
林壽天(77행정) 신임	金秀哲(72정치) 장학·신임
分科委員長 洪錫德(65경제) 총무·신임	高龍圭(74정치) 조직·신임
李載勳(71불교) 체육·신임	
申益炫(72영문) 홍보·신임	

首席 副會長 柳周馨 동문
常任 副會長 朴翊柱 동문

본회 제17대 회장단이 확정되었다. (도표 참조)

앞으로 2년간 10萬 東國人을 대표해 本會의 각종 사업을 주도해 갈 17대 회장단은 수석부회장에 柳周馨 동문(57농학·충남방직그림 부회장), 상임부회장에 朴翊柱 동문(61정치·민자당 국제연구위원)을 두 축으로 유임된 부회장 15명과 신임부회장 25명(해외 부회장 4명 포함) 등 총 41명으로 구성되었다.

신임 부회장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16대에서 수석감사로 활약한 李錫龍 동문(58경제·태평양생명보험 대표이사) 金在鎭 동문(63경제·고속도로 시설공단 사장) 등의 財界인사와 金勳基 동문(61정치·노동

부 차관) 朴泰權 동문(75정치·문화부 차관) 등 官界인사, 慎順範 동문(61정치·국회의원) 梁昶植 동문(78행문·국회의원) 등 政界인사나 申庚林 동문(59영문·민족문학작가회 회장) 柳月誕 동문(68불교·청주 용화사 주지) 등 문화계와 종교계 인사까지 폭넓게 포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해외지부의 결속과 활성화를 위해 美洲4개지역(뉴욕, 워싱턴, LA, 시카고)을 대표로 김우영(64영문) 자경훈(57경제), 김중환(70사학), 김진규(64정치) 동문은 해외부회장으로 선임해 국내 외에서 모두가 東國發展을 위해 총대진할 수 있는 진용을 갖췄다.

또한 회장단을 보좌하고 本會의 업무를 관장할 수석감사에 權錫忠 동문(70정치·서울고속터미널 전무이사)을, 감

東友漫評 鄭雲耕



◇새 회장 중심으로 단합발전

**제 17대 황명수 회장 취임을 축하하며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동국대학교불교대학원동창회

회장 정인악 부회장 정관시 윤천수 총무이사 이재성
 배송압 이석수
 홍보원

주소 : 서울특별시 중로구 견지동 72 가람불교백화점내 동국대학교불교대학원총동창회
전화 : 734-0108

忠北支部 9月18日 창립

清州·忠州 주축, 중부권 活成化 기대

충북지부가 오는 9월18일 오후5시 청주 국제로얄관광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갖는다.

지난 6월25일 청주 로얄관광호텔에서 충북지부결성준비대회를 갖고 발기위원장에 최종태(61법학·청주 MBC충무국장) 등문을 선출한정주식, 충주시, 영동군, 보은군, 옥천군, 음성군의 대표들은 안민동(82경원·로얄관광호텔사장), 유영수(66행정·청주새부서장), 남백선(57법·충북경찰청 경무과장), 박제수(69사학·청주지회 前회장) 등 문 등의 준비위원들과 함께 회칙을 제정하는등 道지부창립에 준비를 하고 있다. 충북지부의 창립에 따라 현

제 영남권과 호남권내 머무르고 있는 道단위의 제육행사들이 중부권이상으로 확대돼 시 부활성화의 촉진제가 될것으로 기대된다.

연락처 : 0431-62-8824 (김사실)

佛大院은 創立
회장 鄭寅岳등문



불교대학 원동장회까지 지난 5월18일 정각원에 서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했다.

各支部 모임 活潑 야유회 등으로 友誼다져

마당회 야유회가져

東國마당회(회장=이무희·67불교)는 지난 5월22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광주군에서 야유회를 가졌다.

광주동문회의 초청형식으로 이뤄졌는데 회원들은 오랫동안 도심에서 벗어나 준비된 음식을 들며 동문회를 가꾼 흐뭇한 시간을 보냈다.

지리산 철학동 관광 全北支部 친목모임

전주, 군산, 이리를 비롯한 전북소계의 각 동창회의 연합인 전북지역총동창회(회장=김삼용·56·불교)는 지난 21일 남원에서 친목회로 모임을 가졌다.

30여명의 인원이 참석한 이날 모임은 전주동문회 김용충부(66·사학)의 안내에 따라 지리산을 관광하고 철학동을 둘러본 한편, 오후에 만안을

불교대학 원동장회까지 지난 5월18일 정각원에 서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했다.

올해 초 졸업한 1期 졸업생 150여명이 주축이 된 불대원

동창회는 초대회장에 정인악(77) 남양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수석부회장에 정관시(가법 불교백화점 대표), 부회장에 배송암(송암사주서), 홍보원(무량사 주지), 윤철수(강정 평가사), 이석수등문을 각각 선임했다.

건지동 가법불교백화점내 동창회사무실을 마련한 불대원동창회는 앞으로 東國發展과 동문간의 우의증진에 힘쓰기로 했다.

17대 회장단 1차회의

17대회장단 제1차 회의가 지난7월29일 프라자호텔 22층 덕수B홀에서 황명수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각급 임원들에 대한 의미기담을 마련하고 본회 고문추대등의 안건을 처리하는 한편 본회운영에 관한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



▲동국마당회의 관주군 야유회 모습

겸하여 동문들간의 우의를 다지는 하루가 됐다.

釜山 古稀동문 축하

부산동문회는 지난7월27일 同會이사인변영길(49문과·경동의료재단 이사장) 등문의 7수를 맞아 함께 열린 출판기념회에 주위동문들이 대거 참석해 동문간의 우애를 보였다.

매월28일 열리는 이사회를 이어 27일 오후 이사회까지 경한 이날 행사는 해운대 조선비지호텔 대연회장에서 친족동문등 500여명이 둘러 성황을 이뤘는데 변동문이 번역출간한 일본노인 요양시설리브집 '노인병동'의 출간을 축하하는 한편 변동문의 부병정수를 기원하는등 회기에애한 분위기를 보였다.



▲연건평 2,950평 지하층 지상5층 규모의 경주캠퍼스 자연과학관 이 지난 16일 개관되었다.

東發協 본격활동 지난 18일 1차회의

東國發展協議會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18일 상경례를 겸한 1차회의를 가진 東發協은 본회와 재단, 모교의 3위가 기대없는 의사교환을 통해 학교 발전에 총력을 기하기위해 결성된 총동창회장, 이사장, 총장의 보좌기구이다.

東發協의 실무위원으로는

本會에서 박익주(61 정치) 상임부회장, 김동영(57 법학) 부회장, 오진도(61법학) 지도위원, 박수철(77행정) 감사, 김영환사무국장(67정) 등이며 재단측에서는 강자우사무처장, 김중삼사업부장, 김용모감사, 학교측에서는 송식구 부총장과, 한태식장학원장, 정용길기획조정실장, 노완섭 학생처장, 이순용교수회장, 박동기개교백주년 기념사업 본부장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위원총수는 14명이다.

새會長 뽑고 결속강화

東大門·中浪支會

동대문·중랑구 동문회는 지난5월 회장단회의를 갖고 신입회장에 서성래(63·생물·삼화전자 대표) 등문을 취임시키는 한편 同會의 발전에 더욱 전력을 기울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부회장에 윤부성(63농생), 노명관(62경제), 윤상길(63법학), 김석희(63법학) 등문을 각각 선임하는 한편 총무에는 이규효(65불교) 등문을 선임했다.

林學科 定期總會

인학과 동창회가 지난 5월 22일 모교 동국관 3층(L301)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신입 회장에 오정수(64인학·모교교수) 등문이 선출 되었다.

140여명이 모인 이날 모임은 인학과 동창회 회칙을 인준하고 새로운 회장단을 선출하는 한편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신임회장단으로는 오정수(64인학·모교교수) 회장과 김수남(70인학·영양가사 부장)·조병목(66인학·강원대

교수) 부회장 등이 선출되었다.

경주 부총장 金甲周 교수



모교 경주 캠퍼스 부총장에 지난 8월 14일자 모교 金甲周(69대원) 등문이 임명되었다. 김등문은 1934년 구미출생으로 모교 대학원에서 69년 석사, 82년 박사학위를 취득, 일본 동경대학 경제학부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 모교인사

<서울캠퍼스> △ 학생부처장 柳雲雲 △ 기획과장 李炳天 △ 교무과장 金鍾振 △ 학생과장 宜相奎 △ 장학과장 金丙深 △ 관제과장 黃禹烈 △ 구매과장 河正統 △ 경영과장 朴煥午
<경주캠퍼스> △ 체육부장 黃來烈 △ 지역개발대학원 교학부장 朴祥鎬 △ 기획홍보과장 李慶賢 △ 한방병원서무과장 尹範大

경조화환·화분, 동·서양난 <도매가

격 판매 전문업체>한통화의 진화로

원하시는 곳 원하시는 시간에 정확

히 배달해 드립니다. • 전국 •

서울시 서초구서초동 1445

진로유통·꽃도매상가

TEL. (대) 521-3900

(야) 521-3838

서 일 화 원

김 인 택

체신부 通信工事면허업체

世宇電子通信公社

TEL : 587-7611 (대)

- 각종 通信設備 유지 보수
- 각종 通信機器 제작 및 설치
- 전자식 자동교환기 및 킷-폰
- FAX·TELEX, 인터넷, MDF 설치
- 컴퓨터 및 SOFTWARE 운영

대표 趙椿煥 (74경영)

시조구 서초동 1628-26 삼정빌딩 302호

물류 자동화 및 전용기시스템전문

삼성, 대우, 금성 등 국내 유수업체의 물류자동화 및 전용기 시스템 사업에 참여한 우수한 기술로 항상 東國人的 옆에 서 있습니다.

巨聖産業機械株式會社

대표이사 이정로 (62경제)

주 소 :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 22블록 8동트

상담전화 : (032) 446-5800

(032) 446-5800~3

제17대 회장단 프로필

新東國 建設의 견인차

신임 黃明秀 총동창 회장



지난 74년 제8대 동창회 이사로서 참여한 이후 20여년간 본會發展에 동참해왔고 국민학교와 중학교, 공군사관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뛰어난 경력을 갖고 있는 4選議員

60년 11월 총남의 제3대 道議員으로 當選되면서 정계에 입문한 이후 9代 국회의원에 當選되었고 11代, 13代, 14代에 연속 當選되었다. 11代 국회동우회장, 民推協 간사장, 국회 5공비리 특별위원회 위원장등을 역임하며 이 나라 민주발전에 공헌했고 3당 합당이후 민자당 당부위원, 국회 보사위원장, 국방위원장을 거쳐 현재 민자당 사무총장으로 재임중이다.

부회장

리더십 갖춘 企業人

柳周驥 수석부회장



57농학과 수 모교대학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뛰어난 리더십을 기졌다는 衆評. 농학과 동창회장과 상수회 회장 재임시 모교와 본회발전에 기여했으며 10代 동창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임된이제 지금까지 줄곧 부회장으로 본會發展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현총남당적 그룹 부회장.

동문유대 강화에 주력

朴翺柱 상임부회장



61년 정치과수. 주월 9사단 참모장, 5관구 부사령관등을 거쳐 예비역 장성으로 11·12代 국회의원, 건설분과위원장, 韓伊의원친선협회 회장, 세계평화광복회 회장, 한국노동공사이사장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민자당 국제연구위원으로 재임하고 있다.

本會發展에 큰 관심

洪鳳來 부회장



53년 법과수. 협성실업공사, 사단법인 한국철물공업협회 회장, 전국불교신도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모교 재단이사로서도 활약했다. 현재 동양금속공업(주) 대표이사로서 지난16대에 부회장으로 추대된후 이번에 유임했다.

후진양성 위해 노력

馬慶子 부회장



신임 53년 국문과수, 경기도 권곡중, 파주여자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前과수여자중

중학교 교장으로 후진양성에 노력해왔다.

私學發展에 進力

安채란 부회장



54년 국문과수. 영석학원과 영석중학회를 설립했고 현재 영석고교 교장과 영석상학 교장으로 사학발전을 위해 노력중

금융계 중진으로 활약

黃龍雲 부회장



54년 경제과수. 금융계의 중진으로 활동하며 한일은행 상무이사, 부산은행장, 한국생물자금을(주) 대표이사를 거쳐 현재 동부증권(주) 대표이사로 경제학과의 동창회장을 맡고 있다.

母校의 법률고문 활동

金東正 부회장



57년 법학과수. 지난 74년에 졸업된 본회발전에 동참해왔으며 광주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72년부터 5년간은 동국학원 장사로 77년부터 현재까지는 모교의 법률고문으로 활약 중인 법조인. 대한변협 부회장등을 역임했다.

16代, 수석감사로 활동

李錫龍 부회장



신임 58년 정치과수. 삼성생명 입사후 30여년을 줄곧 보험업 외길을 걸어온 보험인으로 삼성생명 상무이사, 同전우회사, 한국지동차보협 부사장, 동부메트나생명보험 사장등을 거쳐 현재는 태평양생명보험(주) 대표이사로 재직중.

自手成家한 정치인

南平祐 부회장



59년 경제과수. 수원에서 30여년간 운수업으로 自手成家를 이룬뒤 14대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정치초년생. 현재 경인일보사 명예회장, 남경장학회회장으로 국회에서는 내부,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중이며 본회발전에 적극 동참해 왔다.

民同회장, 苦悶詩人

申庚林 부회장



신임. 59년 영문과수, 73년 첫 시집인 「農舞」 이래 생동감 있는 현실언어로 민중정서의 새지평을 열었다. 현재 민족문학작가회의 회장과 민주동문회장을 맡고 있다. 1회 만해문학상, 한국문학작가상, 제1회 동국문학상, 제2회 이산문학상등을 수상했고 「새재」, 「길」, 「민요기행」 등 대표작 다수.

기획, 추진력 출중

金在基 부회장



60년 경제과수. 행원에서 출발해 행장까지 오른 주택은행 창설이사로 화제에 올랐고 뒤어난 기획력과 추진력을 갖췄다. 주택은행장과 외환은행장 역임.

本會발전에 적극 참여

張亨植 부회장



신임. 60정 치과과수. 東萊會 총무, 한국타포린(주) 감사등을 역임했고 현재 금강특수인쇄(주) 대표이사 회장. 16대에서는 운영위원으로 적극참여했고 평소 본회발전에 남다른 열의를 보여왔다.

제약업계의 일꾼

韓相根 부회장



신임 60년 정치과수. 財團法人 한국인간개발연구원 이사. 친일계약(주) 대표이사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친일생명과학기술연구소 회장으로 재임중. 세계평화공존을 발행하는등 활동력이 넓다는 評.

女學士會 이끌어
禹順伊 부회장



신임. 60년 정치과수. 협성Tape 부사장, 세지통상(주) 대표이사, 협성Tape 판매(주) 대표이사등을 거쳤으며 현재 민자당 시장으로 재직중.

안채란 부회장과 함께 女학士會를 이끌어 오고 있다.

성실한 실무행정통

金勳基 부회장



신임 63년 정치과수. 통일원 행정관 리담당관, 平統 사무차장과 平南지사를 거친 실무행정통으로 平統차문화의 창설요원으로 활약한 바있다. 현노동부 차관.

本會發展 남다른 열성

朴完一 부회장



61년 불교과수. 모교교수와 전국 불교 신도회 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현재 민자당서 울시 은평을구 지구당 위원장으로 月刊 「법률,법학」, 불교방송국 이사, 한국사회교육연구회 회장, 재단법인 부전장학회 이사장등을 겸하고 있다.

장관역임한 행정통

李衍澤 부회장



61년 법학과수. 88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사무차장으로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일조했으며 청와대 행정수석, 총무처 장관, 노동부 장관등을 역임한 행정가로 현재 한국행정연구원 고문으로 재임중.

정치학회 계속참여

朴殷奎 부회장



신임. 61년 정치과수. 라이온스協會 강남지구회장을 지내며 봉사활동등을 해왔고 건설기초공사용 파이프산업체인 대동철강(주)와 대동콘크리트 회장으로 재직중.

리먼장사서 국회의원

愼順範 부회장



신임. 61년 정치과수. 11代 총선에서 군소정당 안민당으로 출마, 당선된후 내리4選을 기록한 입지전적인 정치인.

남북국회회담 한국측 대표, 민주협 상임운영위원, 平民黨 전남도지부장, 사무총장, 국회경과위원장, 민주당 당부위원을 거쳐 현재 민주당 고위위원

本會발전에 큰 功

鄭相永 부회장



61년 법학과수. 현대건설(주) 부사장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주)금강고려화학(주) 회장. 그동안 본會 이사, 상무이사, 부회장으로 많은 공헌을 해 왔다.

후배들에게 큰 관심

金濟局 부회장



신임. 61년 경제과수. 4·19당시 모교 총학생회 체육부장으로 활동했으며 국회의원비서관, 대외인삼사 대표, 상남신희 대표를 거쳐 현재는 민자당 중앙상무부 총남연합회장과 강남고려병원이사장을 맡아 활동중

의료기생산 企業人

韓永輝 부회장



신임. 61년 경제과수. (주)삼우기대, 한영대역(주), 한영메디칼(주), 한영과학(주) 등 주로 의료기업체의 대표이사를 지내며 있으며 현재 한영의료기기(주) 회장.

政治學會서 많은活躍

金北哲 부회장



신임. 62년 정치과수. 산양공공사(주) 이사, 평화산업 대표등을 거쳤으며 정치학과동문회에서 많은 활약 現평화기업 대표.

활동력있는 정치인

金榮龜 부회장



62년 경제과수. 4選(11, 12, 13, 14代) 의원으로 국회 재무위원간사, 민정당 창당 발기인, 원내부총무, 총재 비서실장, 국회 재무위원장, 민자당 사무총장을 두루 역임. 현재 민자당 원내총무로 맹활약중.

회계사出身 大宇맨

金榮煥 부회장



신임. 62년 경제과수. 제1회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76년 대우실업(주) 이사 취임후 同상무이사, (주)대우 전무이사등

을 거쳐 현재 (주)대우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재직중인 대우맨.

동문사회서 많은활동

李世茂 부회장



62년 국문과수 한국부역(주) 감사, 대영전기(주) 대표이사, 성관대 이사, 문경학원이사장, 동창실업(주) 회장을 역임하면서 동문사회에서도 많은 활동을 해왔다.
現 동창제지(주) 회장.

열성적참여 愛東國人 金在鎭 부회장



신임, 63년 경제과수, 도로공사 경리부장, 호남, 충청지사장,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이사, 도로공사 업무본부장등을 두루 역임했고 현채는 고속도로 시설공단 사장으로 재직중이다.

東國發展 1등功臣 東國發展 1등功臣 朴堉亨 부회장



63년 경제과수, 신락은행 비상근이사를 지냈으며 평소 교묘와 본會發展에 많은 공헌을 해왔다.

현재 원안어업협회장, (財)신라문화재단 이사장, 전경연이사, 한국자유총연맹이사, 신라교역(주) 회장으로 활동중.

검찰계 선두주자 申相斗 부회장



신임, 64년 법학과수, 제2회 사시출신으로 서울지방경찰청, 남부 및 북부 지청장과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춘천지검 검사장등을 두루 역임한 검찰계 선두주자로 현 부산고등검찰청 차장전사로 활약.

웅변력 뛰어난 政治人 朴熙富 부회장



신임, 65년 법학과수, 4·19혁명, 6·3의거당시 汎靑鬪委委員長이었던 공헌을 지내며 있고 신민당 조직국장, 민주협 조직국장등 출품 헌난한 아량의 길을 걸어왔다.

지난해 14대총선서 첫 급메지의 영광을 안았고 뛰어난 웅변력을 갖췄다는 평.

참여도 높은 열성파 李和一 부회장



65년 상학과수, 통일상역(주) 대표이사, 삼화화학(주) 전무이사, 조선내화학공업(주) 대표이사등 역임. 現조선내화(주) 대표이사로서 본會發展에 적극 동참해온 愛東國人.

석림동문회장 역임 柳贊秀 부회장



신임, 68년 불교학과수, 법명 月廷, 조계종 주지, 조계종 총무부장, 同宗堂 총회회장, 속리산 법주사 주지, 석림동문회장, 평통상임지부위원장등을 역임했고 現 정주 용화사 주지.

政治東國의 소장파 朴泰權 부회장



신임, 75년 정치과수, 13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있고 민주협 출판문화국장, 同연론자유특발위 부위원장, 민주산악회 중앙본부장 역임한 政治東國의 소장파.
現 민자당 서산시·군내안군지구당 위원장, 문화부 차관.

관료출신 서울市議員 金瓊會 부회장



신임 (당연직), 70년 행정원수, 서울시 중구·영등포구청장, 서울시 교통, 재무, 내무, 보사국장, 동기회관리관, 제1부시장, 인천직할시장, 산림청장을 역임한 내부관리 출신.

30년만에 부활된 지자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現서울시 의원, 행정대학원동문회장.

將星출신 3選議員 梁燦植 부회장



신임, 78년 행정과수, 주월백마 제30전 부단장, 陸本 작전 참모부 기획처장, 대간접채택본부 차장등을 거치며 많은 부공훈장을 수상한 예비역 장성으로 3選(11, 12, 14代) 의원.

의욕적인 企業人 具滋善 부회장



신임 (당연직), 81년 경영원수, 을 조경역 대학원 동창회장으로 활동하다 곧바로 동창회 사무실을 기증하는 등 의욕과 추진력을 가졌다는 평.
현재 (주)한림유통 대표이사, 방림산업(주) 이사, (주)대우주택 대표이사로서 활동중.

海外담당 副會長 車경훈 부회장

▲車경훈(57경계) =在美 워싱턴 동문회장 11186 Longwood Grove Dr. Reston VA 22094
▲金우영(64영문) =在美 뉴욕 동문회장 500 Chestnut St. Union, NJ 07083
▲金振揆(64경외) =在美 시카고 동문회장 6007N, Sheridan #37E Chicago, IL60660
▲金鍾漢(70상학) =在美 L·A 동문회장.

갑 사

뛰어난 기획력 자랑 權錫忠 수석감사



신임, 70년 정의과수, 올산 알미늄과장, 同차장, 同영업부장, 올산건설대표이사, 민정당 청년특별위원, 민자당 중앙상무위원역임.
현재 서울종합타미날(주) 전 부사장으로 재직중.

民主산악회서 활동 李哲賢 감사



신임, 67년 법학과수,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민주산악회 기획조정실장, 민자당 민원부 실장등을 역임했으며 9월1일자로 대원 승용자동차 사장으로 발령받았다.

폭넓은 활동력 가져 朴壽天 감사



신임, 77년 행정과수, 서울청년회의소 총무이사, 사회복지법인 성리원이사, 학교법인 계신학원 감사, 민주산악회 중앙본부 지도위원, 한·우즈베크공화국 친선협회이사등으로 많은 활동.
現 새한종합금융(주) 부장.

고 문

- ▲文泰植(49사학) =이주산업(주) 회장
▲閔容植(49문학) =일우공업(주) 회장
▲南相龍(49사학) = (주) 크로마 회장
▲柳根昌(50문학) =한국주택협회 회장
▲金道復(51정치) =서울고속터미널(주) 대표
▲崔載久(52국문) =민자당 고문
▲鄭在哲(52국문) =一直前會長, 국회의원, 민자당 중앙상무위원회 의장
▲朴辰熙(52경계) =경북광유(주) 회장
▲金聖涉(53정치) =민자당 고문
▲李智冠(69대원)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지도위원

- ▲崔致根(49문학) =前대한 언론인의 감사
▲權魯甲(53경계)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金準鏞(53경계) =매일유업(주) 상임고문
▲金容彩(54법학) =황실예식장 대표
▲文明曄(54정치) =한국건설주협회 고문
▲李相直(54경계) =아경통상(주) 대표이사
▲洪濟子(55정치) =세계여성단체협의회 명예회장
▲李敏輝(64경계) =在美 대한체육회 상
▲李鍾國(57영문) =前충남도지사
▲宋寶烈(57경계) =제일시터리스(주) 회장

- ▲許文秀(57경계) =상림성호신문출판회 회장
▲鄭寬淳(58법학) =前농수산물유통공사 이사장
▲宣普圭(59불교) =봉화산수원원 원장
▲李英駿(59법학) =신미식풍공업(주) 대표이사
▲金之煥(60정치) =국민연금관리공단 상임이사
▲林德圭(60법학) =月刊디플로머시 회장
▲朴恩會(61영문) =성균관대학교 교수
▲吳鎭模(61법학)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崔炯佑(63정치) =국외의원
▲李斗世(63정치) =오성공업사 대표
▲尹錫均(69영문) =대한항공공회 회장
▲朴玄植(75영문) =현정정사 주지
▲曹奎(77경계) =외교양행(주) 대표이사

운영위원

- ▲趙集成(52경계) =한국자보 대일대리점 대표
▲安재만(54국문) =부회장 겸직
▲黃龍雲(54경계) =부회장 겸직
▲趙誠雲(56경계) = (주) IRC 대표이사
▲金東正(57법학) =부회장 겸직
▲柳周馨(57문학) =부회장 겸직
▲宋寶烈(57경계) =지도위원 겸직
▲金淳杓(57문학) = (주) 전우방계 대표이사
▲李宗鎬(58법학) =중의계약(주) 회장
▲平福昌(58정치) =삼성시흥엔타(주) 대표이사
▲李錫龍(58정치) =부회장 겸직
▲南平祐(59경계) =부회장 겸직
▲安熾亨(59정치) =석천산업(주) 대표이사
▲馬順伊(60정치) =부회장 겸직
▲鄭寅岳(60정치) = (주) 남양 대표이사
▲金在基(60경계) =부회장 겸직
▲張宇植(60경계) =부회장 겸직
▲韓相根(60정치) =부회장 겸직
▲姜熹瓚(61정치) =국회의원
▲金何成(61경계) = (주) 한일광고 대표이사
▲尹柱鶴(61경계) = (주) 홍국상사 대표이사
▲金濟局(61경계) =부회장 겸직
▲金勳基(61경계) =부회장 겸직
▲朴珪柱(61정치) =부회장 겸직
▲愼順範(61정치) =부회장 겸직
▲鄭相永(61법학) =부회장 겸직
▲沈春燮(61정치) =월간봉체계사 대표이사
▲李敏煥(61정치) =진로건설(주) 대표이사
▲金在經(61경계) = (주) 동보 대표이사
▲金北喆(62정치) =부회장 겸직

- ▲李世茂(62국문) =부회장 겸직
▲金鎭榮(62법학) =대우통신(주) 부사장
▲鄭在鎬(62정치) =주택은행 영업부장
▲朴堉亨(62경계) =부회장 겸직
▲元容澈(63영문) =남양전기(주) 대표이사
▲尹富成(63상학) =동국기회(주) 회장
▲崔鍾錫(64법학) =삼풍건설(주) 대표이사
▲朴熙富(65법학) =부회장 겸직
▲李和一(65상학) =부회장 겸직
▲洪錫樞(65정치) =충북분과위원장 겸직
▲金장만(65경계) =동서증권 전무이사
▲李靑桂(65법학) =국회의원
▲金大元(65경계) =삼영산업(주) 대표이사
▲鄭奎完(65경계) =용아산업(주) 회장
▲李禮祿(65경계) =유전자원(주) 부사장
▲鄭鎭化(65상학) =태화기업(주) 대표이사
▲丘在在(67경계) =경찰청감찰담당관
▲金定信(67정치) =무성모래매점 대표
▲金海秀(67정치) = (주) 정방종합건설 회장
▲李濟坤(68경계) = (주) 스탠다드 대표이사
▲柳月誕(68불교) =부회장 겸직
▲孫雄萬(68정치) =제일투자금융(주) 상무이사
▲俞炳完(68상학) =한양상사 대표
▲宋在福(69경계) =대한컴퓨터기술(주) 대표
▲李鍾基(71경계) = (주) 동방 대표이사 사장
▲金鎭文(71경계) =재부분과위원장 겸직
▲南基一(72경계) =삼연유지(주) 전무이사
▲金秀哲(72경계) =장학분과위원장 겸직
▲朴泰權(75정치) =부회장 겸직
▲朴東烈(78경계) =국제청행정부무관
▲金寶鍊(79법학) =변호사
▲秋東憲(84대원) =삼보진흥(주) 회장
▲李燦會(70경계) =부회장 겸직
▲黃慶石(73영문) =선진기업(주) 대표이사
▲梁昶植(78영문) =부회장 겸직
▲具滋善(81경원) =부회장 겸직

분과위원장

- ▲洪錫樞(65정치) =충북분과위원장, 現한국대프론공업(주) 대표이사
▲金鎭文(71경계) =재부분과위원장, 現신성약품(주) 대표이사
▲李載軒(71불교) =체육분과위원장, 現동국통상대표
▲金秀哲(72정치) =장학분과위원장, 現풍천산업(주) 대표이사
▲申益炫(72경계) =홍보분과위원장, 現(주)중국여행사 대표이사
▲高龍圭(74정치) =조직분과위원장, 現명인제약(주) 전무이사

MBC 부극장급 TV제작위원
 ▲金榮和 (67·경행) →전남
 곡성 정치시장
 ▲金眞培 (68·사학) →울산
 지방 해운항만청장
 ▲宋寅植 (63·정외) →세계
 일본 정치부장대우
 ▲姜德先 (69·경제) →주택
 은행 신촌부 지점장
 ▲金基德 (71·영영) →
 MBC FM2 부장
 ▲崔昌燮 (74·경행) →
 MBC 아나운서 부장
 ▲林鐘漢 (74·정영) →서울
 경찰청 방범기획계장
 ▲朴大錫 (75·경영) →
 KBS 국제부장대우
 ▲虛相九 (79·정원) →충천
 지방병무청 징병청
 ▲朴善森 (87·경박) →서울
 신한은행 외환업무부장
 <한일은행>
 ▲정인서 (66·법학) →대구
 동 지점장
 ▲장우현 (69·경영) →충소
 기업부 부부장
 ▲황영길 (70·경영) →이천
 지점장
 ▲김태진 (80·경영) →세종
 로 지점과장
 ▲최오장 (80·경제) →응암
 동 지점과장
 ▲한선호 (81·경영) →신타
 부대리
 ▲김광철 () →인천 지점
 ▲정화영 (85·정외) →주신
 업무부 대리
 ▲배광한 () →회계 →동
 좌동지점 대리
 ▲이준홍 () →산공 →지점
 실남지점 계장
 ▲김정환 (88·경영) →명동
 지점 계장
 ▲이원설 () →무교동 지점

▲홍익표 (80·건축) 동문은
 지난 4월 9일서초구 잠원동 26
 -2 금정빌딩 101호에 (주) 하
 인건업을 개업했다. (T. 518-
 2071-3)
 ▲니병 8 (82·법학) 동문은
 지난 4월 17일성동구 지양동
 216의1 분화빌딩 3층에다 송
 합동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T. 453-8192-3)
 ▲宋廣宇 (84·수학) 동문은
 지난 8월 19일 강남구 삼성동
 143-11 남양빌딩 2층에 서울.
 리서치 연구소 산하 마케팅청
 보신문인 <서울 정보이야기>
 를 창간하여 새로이 사무
 실을 확충 이전하였다.
 (T. 562-0247)

回甲

▲金允鍾 (57·법학·분회
 이사) - 지난 6월 10일 오후 5
 시에 압구정동 경복궁 부폐에
 서 모친 칠순 회갑연을 가졌
 다.

結婚

▲金鍾國 (57·영문) = 지난
 6월5일 오후1시 공작 터미널
 예식장에서 장남 결혼
 ▲강창순 (60·분교) = 지난
 5월 27일 오후3시 해군회관에서
 장남 결혼
 ▲李연택 (61·법학) = 지난
 8월 10일 동부 이촌동 은누리
 교회에서 장남 결혼
 ▲南基振 (61·법학) = 지난
 5월 27일 12시부산문화회관에서
 장남 결혼
 ▲李正煥 (62·경제) = 지난
 6월 19일 오후2시 강남 중앙침
 례교회에서 장녀 결혼
 ▲김원식 (62·정치) = 지난
 5월 22일 오후 2시 30분 목화
 예식장에서 딸 결혼
 ▲노명관 (62·경제) = 지난
 5월 1일 오후 2시 여전도회관
 2층에서 차녀 결혼
 ▲趙恒春 (73·법학) = 지난
 6월 17일 오후 1시 태극관 예
 식부 2층에서 장남 결혼
 ▲추연규 (67·행정) = 지난
 5월 15일 오후 1시 개봉예식장
 에서 장남 결혼

訃音

▲최형우 (63정치·국회의
 원) = 지난 8월 3일 부친 별세

移轉·開業

▲金銅原 (63·경제) 동문은
 지난 7월 29일(木) 강서구 화
 곡본동 176-17에 합홍중점
 회곡점을 개업했다. (T. 605-
 7456)
 ▲金仁丰 (64·정외) 동문은
 지난 5월1일 경기도 수원시 팔
 당에 (주) 신라토건을 개업했
 다. (T. (0331)-37-7472-4)
 ▲金珍杓 (64·인학) 동문의
 인주영림서 외정부 관리소가
 신축정사로 이전하였다. 주소
 는 경기도 양주군 회천을 회정
 리 25-2(T. (0351) 867-
 8201-9)

- <6면에서 이어질>
 ▲최용관 (64상학) = 7
 ▲안창우 (66경제) = 7
 ▲정용남 (63경제) = 7
 ▲이상진 (60법학) = 7
 ▲이한우 (85교원) = 7
 ▲김종일 (58법학) = 7
 ▲김왕식 (76통계) = 7
 ▲나성규 (65상학) = 7
 ▲이해근 (55정외) = 7
 ▲정도송 (85정원) = 7
 ▲조정현 (57경제) = 7
 ▲안정호 (66정외) = 7
 ▲이창영 (52정외) = 7
 ▲황갑순 (52정외) = 7
 ▲민병희 (67상학) = 7
 ▲이희일 (63정외) = 7
 計 = 763민원
 ◆年會費 (단위: 원)
 ▲노덕일 (65농경) = 15
 ▲권준명 (68법학) = 15
 ▲송원보 (85정원) = 15
 ▲김성규 (60경제) = 15
 ▲인종규 (69정외) = 15
 ▲박일근 (73농경) = 15
 ▲김영표 (66정원) = 15
 ▲박형섭 (60정원) = 15
 ▲신학희 (63정영) = 15
 ▲최종대 (59정제) = 15
 ▲정희용 (68국문) = 15
 ▲홍순용 (71정영) = 15
 ▲황동현 (81정행) = 15
 ▲신윤찬 (65법학) = 15
 ▲지홍재 (58정제) = 15
 ▲배두구 (88한외) = 15
 ▲안중관 (79통계) = 15
 ▲구태희 (80부역) = 15
 ▲윤원호 (83정원) = 15
 ▲이제일 (87정영) = 15
 ▲박희삼 (87정원) = 15
 ▲김요영 (69법학) = 15
 ▲김상기 (89정원) = 15
 ▲안재호 (64정영) = 15
 ▲박순민 (89정원) = 15
 ▲이용훈 (77농생) = 10
 ▲김성규 (82정제) = 15
 ▲이승재 (82도행) = 15
 ▲강승규 (73정외) = 15
 ▲이정우 (63정원) = 15
 ▲김평락 (68정행) = 15
 ▲정경대 (69정제) = 15
 ▲김길재 (66정제) = 15
 ▲배삼현 (61사학) = 15
 ▲정의용 (68국문) = 15
 ▲홍순용 (71정영) = 15
 ▲박영희 (66화학) = 15
 ▲한관수 (80정제) = 15
 ▲박경영 (80수학) = 15
 ▲정윤호 (60법학) = 15
 ▲이중삼 (62법학) = 15
 ▲이학식 (61법학) = 15
 ▲윤영신 (80정행) = 15
 ▲우정우 (69정영) = 15
 ▲조영삼 (82국문) = 15
 ▲최수영 (69정제) = 15
 ▲이상진 (70정행) = 15
 ▲박태원 (68한외) = 15
 ▲김남성 (82정행) = 15
 ▲김규훈 (69정제) = 15
 ▲오하동 (40中佛) = 15
 ▲장성익 (67정외) = 15
 ▲김영대 (61정제) = 15
 ▲정장식 (62정제) = 15
 ▲조희수 (63국문) = 15
 ▲문창모 (63사학) = 15
 ▲오윤성 (63법학) = 15
 ▲서진석 (65상학) = 15
 ▲변부일 (65정원) = 15
 ▲이현숙 (67국문) = 15
 ▲김진찬 (68정영) = 15
 ▲김영환 (85정원) = 15
 ▲김경환 (63정제) = 15
 ▲김만연 (62정외) = 15
 ▲김진수 (81정외) = 15
 ▲김민일 (82정원) = 15
 ▲정주화 (87한외) = 15
 ▲유규규 (83정원) = 15
 ▲연기복 (84정원) = 15
 ▲정운식 (73법학) = 15
 ▲최병성 (75농경) = 15
 ▲조용진 (87사학) = 15
 ▲인상록 (92지원) = 15
 ▲최정환 (90지원) = 15
 ▲윤세복 (80법학) = 15
 ▲김운도 (85정원) = 15
 ▲김인택 (90회계) = 15
 ▲김정희 (70정원) = 15
 ▲박영규 (76정행) = 15
 ▲김정준 (53정외) = 15
 ▲최상용 (61정제) = 15
 ▲김병우 (69농생) = 15
 ▲이모광 (76식공) = 15
 ▲안경수 (63상학) = 15
 ▲이흥우 (80체교) = 15
 ▲하학길 (64국문) = 15
 ▲윤명학 (81공경) = 15
 ▲양희태 (87한외) = 15
 ▲김진수 (81정외) = 15
 ▲김인순 (80정원) = 15
 ▲정경관 (86정제) = 15
 ▲이정복 (69통계) = 15
 ▲김상진 (83정원) = 15
 ▲김성달 (89정원) = 15
 ▲이창복 (87한외) = 15
 ▲이정복 (69통계) = 15
 ▲김부환 (86한외) = 15
 ▲최병각 (68상학) = 15
 ▲이창복 (87한외) = 15
 ▲이정복 (69통계) = 15
 ▲조일련 (62법학) = 15
 ▲김창식 (65국문) = 15
 ▲이 석 (90지원) = 15
 ▲김영환 (85정행) = 15
 ▲최영철 (81회계) = 15

금속인쇄, 最高가 되야조

대성강관인쇄(주) 李亨執 동문



「가격
 데 없
 상을 받
 아 송구
 스텝 지
 린 평소
 성실 하
 게 살아
 온것을 인정받
 는 것으
 로 알겠
 다.며 소
 감을 밝
 혀는
 李亨執동문 (85수·대성강관
 인쇄(주) 대표이사) 연간 매
 출액이 1백억원에 이르는 대
 성강관인쇄(주)는 식판, 에어
 즐판, 건전지, 양관 및 P.P.
 CAP인쇄를 전문으로 하는 중
 소기업으로 금속표면인쇄 특
 히 캔종류의 인쇄기술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6·25적후인 54년 상경해
 신문매달과 문방구 가두판매
 등을 하며 고학을 했었다.는
 李亨執은 지금은 없었지만 동
 아 송구 스텝 지 린 평소 성
 실 하 게 살아 온것을 인정받
 는 것으 로 알겠 다.며 소 감
 을 밝 혀는 李亨執동문 (85수·
 대성강관 인쇄(주) 대표이사)
 연간 매출액이 1백억원에 이
 르는 대성강관인쇄(주)는 식
 판, 에어 즐판, 건전지, 양관
 및 P.P. CAP인쇄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금속표면
 인쇄 특히 캔종류의 인쇄기술
 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캔 종류 인쇄 이미 정평나 있어
 기속사 착공, 사원사랑 '으뜸'**

앞에서 6억원원을 들여 기속
 사를 착공하고 사원들의 결혼
 식례 발벗고 나서 주례를 선단
 다.
 「같이 일하고 모두가 잘 살
 아야 한다.는 李亨執은 노조
 가 없는 회사인 만큼 사주가
 사원들에게 더욱더 각별해야

流通은 信用, 企業은 사람

그랜드 백화점 金晩進 동문

리농산물 애용확산운동을 꾀
 와 그동안 농수산부장관 표
 장, 노지사 감사대 수상은 말
 할 것도 없고 91년 마켓팅대
 수업체대로 선정 마켓팅대상
 을 수상하기도 한 質과 量이라
 는 두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급속성장한 江南패션 1번지

「더 훌륭한 동문들이 많을
 텐데 이거 기쁨보다는 송구스
 럼움이 앞섭니다. 열심히 최
 선을 다하라는 채적으로 알겠
 습니다」
 환한 웃음으로 기자를 맞은
 金晩進동문(91 정영) 그랜드
 백화점 대표(이사)는 경영대학
 원 개원20주년을 맞아 우수경

영인상을 수상하게된 초심을
 밝힌다.
 92년 총2050여원의 매출로
 전국50대 대형백화점중 9위에
 랭크되었고 서울시내 6대 백
 화점중 유일하게 92년도 한국
 그룹협회선정 3,000대기업중
 330위에 선정된바 있는 그랜
 드 백화점은 「강남패션 1번
 지」라는 유명현(?) 기피로도
 알려져 있다.

- 이이 金동문은 「우리 국민
 은 환원하면 못할가리지 않는
 만큼 새로운 경제전망이 작
 다.
 평소 기업경쟁을 통해 학문
 적 지식의 접목이 필요해 입학
 했다는 金동문은 부처님대 인
 연으로 東國대원인것 같다고
 일요일에도 출근해 주차안
 내를 하다 직원들의 만류로 서
 만문 金晩進동문, 그랜드백
 화점과 그랜드점중, 그랜드중앙
 타권, 그랜드점중동의 회사를
 를 경영하는 것이니까요」
 이이 金동문은 「우리 국민
 은 환원하면 못할가리지 않는
 만큼 새로운 경제전망이 작
 다.
 평소 기업경쟁을 통해 학문
 적 지식의 접목이 필요해 입학
 했다는 金동문은 부처님대 인
 연으로 東國대원인것 같다고
 일요일에도 출근해 주차안
 내를 하다 직원들의 만류로 서
 만문 金晩進동문, 그랜드백
 화점과 그랜드점중, 그랜드중앙
 타권, 그랜드점중동의 회사를
 를 경영하는 것이니까요」

< 11면에 계속 >

5월16일 1시, 모든것이 발아래 있었다

이 글은 에베레스트 남서벽등정을 위한 끊임없는 도전속에 끝내 기약전후로 인해 공격루트를 바꿔가면서까지 기어올라 에베레스트 정상에 동국인의 기상을 날렸던 박영석(90세)과 동문의 등정기이다.

국내최초 무산소등반과 대학단일팀 세계최고봉 등정의 쾌거를 이룩했던 박동문은 그러나 하산도중 추락사한 대원인(남원우, 안진섭)에 대한 회한으로 자신의 기록을 애써 축소시키려만 했으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편집자의 요청으로 집필하게 되었다.

< 편집자註 >



▲박영석동무 (BC에서)

3개월간 치열한 악몽을 꾸다 깨어난 것 같은 지금 이순간에도 나는 아직 에베레스트 남서벽의 아득한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91년봄 처음으로 남서벽을 찾았을때 고풍했던 땅이처럼 지친 지신감 하나만 믿고 겁없이 날뛰다가 150m를 추락,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겨우 목숨만 건져 돌아온후부터 나는 그 거대한 설산을 향해 절지부심 칼을 갈았다. 그 무엇이 나를 남서벽으로 부터 도망칠수 없게 하는지, 만신창이가 돼 카투만 두 파란편원 수술집을 들어가면서 보았던 에베레스트의 사진은 내 꿈자리를 괴롭히고 가위눌러 소스라친 수많은 새벽들을 맞게했다.

외상이 지우피고 난 더이상 주저없이 있을수만없었다. 곧바로 91~92동계에베레스트 남릉 동계 조정을 목표로 동반대를 꾸렸다. 이인정 단장님

께 남서벽 재도전을 고집했으나 아직 동국대 산악부로서는 무리라는 선배들의 만류에 한발짝 물러설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남릉 동반 C₂에서 바라다 보이는 남서벽의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되어 시종 눈을 떼수 없었다. "그렇다 이번의 마지막 기회는 아니다, 내 꼭 다시돌아와 기어올라 나를 라서마" 동반중 남서벽에 대한 구상을 열심히 했다. 물론 남릉 역시 최선을 다해 동반에 임했다. 동계남릉 세계조정의 꿈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추위와 바람으로 인해 고지를 눈앞에 두고 8700m에서 물러서야 했다. 그러나 성과는 있었다. 산소레귤레이터가 없어 꿈으로만 여겼던 무산소 등반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남릉등정이 실패로 끝난뒤 철수집에 모든 장비를 현지서 동반을 도왔던 셀파와 소남체링에게 팔았다. 꼭 돌아와 남서벽에 붙었다는 각오의 표시였다.

서울에 돌아오자마자 휴식도 없이 곧바로 원정준비에 돌입했다. 거액이 들어가는 만큼 스폰서 및 자금 확보 문제가 어려웠으나 무엇보다도 남서벽에 도전 할 수 있는 체력과 기술을 겸비한 대원 확보가 큰 과제였다. 여러분들과의 숙의끝에 이인정 선배님을 단

장으로 이종량선배님이 대상으로 내가 동반대장, 김진성군이 동반부대장, 남원우(88정찰행정) 행정, 안진섭(체고4在) 장비, 김형우(무역8在) 회계, 김태근(전기공학3在) 식량으로 구성된 동반팀이 구성됐고 3월11일 비장의 각오로 김포를 출발했다.

카투만두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식량, 장비를 구입하러 발 빠르게 움직였고 미흡한 행정 절차 뒷처리를 이종량 대장에게 맡기고 B.C로 향하였다.

약 4톤의 짐을 포터 약 150명과 야크(고산에 사는 소)들이 나눠지고 B·C(5400m)를 향해 서서히 고도를 높였다. 3월18일 남세(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서는 장)에 도착하여 고소 적응 훈련을 실시하고 현지 식량, 장비를 추가로 구입했다. 그곳에서 루지 주인, 장비집 주인등 낯익은 현지친구들과 반가운 야수를 나누었으며 뒤이어 카투만두를 출발한 한국여성등반대도 만날수 있었다.

3월27일 고소적응이 잘안된 남원우, 김형우 대원을 뒤로 남고 전대원이 B·C에 입성했다. 그곳에는 우리 보다 일주일 먼저 선배대로 출발한 김진성군이 캠프를 완성하고 셀파들과 함께 반가운 포옹으로 우리를 맞아 주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는 설에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식량, 장비 체크와 캠프별 계획서 작성에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3월29일 안전한 동반과 성공을 기원하는 라미제(셀파

반을 시도했다.

약 600m의 고정로프와 스노우바등 루트공작에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C₂를 출발했다. 1시간 30분쯤 왔을가. 엄청난 크레바스가 아가리를 찍 벌리고 서 있었다. 일명 베르너슈트리트라고 불리는 거대한 빙하 틈이었다.

캠프3까지의 루트는 예상처럼 무난했음무시히 고정로프를 깔고 캠프2에 복귀했다. 4월10일 나와 김태근, 셀파1명은 캠프3 건설을 위해 오전8시 캠프2를 출발하여 11시10분 캠프3에 도착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소적응이 잘돼 나중에는 2시간만에 주파하는 페이스를 보였으며 텐트1동을 설치하고 캠프2로 지친 몸을 이끌고 귀환하였다. 그러나 7000m상에서 4~5시간 고위중노동 탓에 머리로 아파오고 몸에 이상이 느껴져 고산병의 우려와 함께 추슬리기 힘든 몸의 피로가 쌓여왔다. 하루는 쉬고 나서 신전을 시작했다. 나와 김진성, 김태근대원 3명은 캠프3 작업을 위해 이틀전 같이놓은 고정 로프를 이용 고도를 높여갔다. 그러나 그곳엔 엄청난 약전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치 앞도 안 보이는 눈보라 속에서도 우리는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약전후에 무릎을 꿇고 캠프4를 500m정도 남겨둔 지점에서 캠프2로 철수하지 않을수 없었다.

제작된 150m아래로 추락했던 지점이어서 옛악몽이 되살아났다. 마음을 추슬려 지친



▲C4 지점으로 이동중

했다. 나와 우리 대원이 영호형의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 셀파(까지와남)가 캠프4까지 고정로프 설치를 끝냈다. 셀파들의 헌신적인 동반 협조에도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이리던중 사무스콜 넘어로세 페이스에(약7,800m지점) 어렵한 사람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영호형과 셀파였다. 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캠프3로 영호형을 마중나갔다. 그러나 영호형은 내가 쓰고있던 모자와 고글 때문에 나

남서벽, 지난 91년에도 실패했던 難코스 불상·통일기원문 頂上 봉안



들의 의식)을 올렸다. 이번 원정은 국내 최초 남서벽 등정 성공을 목표로 한것 뿐만 아니라 세계최초로 불상과 통일을 기원하는 발원문을 정상에 봉안 하도록 계획 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의식 진행이 무척 엄숙하게 진행 됐고, 제단 한 가운데는 서울서 모시고간 불상이 세워졌다.

김진성 대원과 셀파들이 진행한 사전 작업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이이스콜 지대를 뚫고 동반 루트 작업을 하는데 20일이 넘게 걸렸고, 알투미늪 사다리 60개 고정로프 약 5,000m, 스노우바, 파이프스쿠류등 수많은 장비가 투입됐다. 3월30일 「대망의 동반개시」 캠프1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빙하가 무너지면 개척하고 또 무너지면 다시 뚫고... 수없이 반복했다. 셀파 3명은 아예 이이스콜만 전진시켰다. 연일 캠프1으로 짐을 옮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캠프2 루트 건설을 동시에 시도했다. 4월3일 캠프2 건설, 짐수송을 끝냈고 4월9일 드디어 남서벽등

몸을 이끌고 8,000m벽의 루트공작을 해나갔다. 상상을 초월한 인내력과 체력을 요구하는 최악의 싸움을 해나갔다. 4월13일 티벳쪽에서 무전이 타전되었다. 역시 동대산악부 출신으로 그쪽 루트로 원정대를 이끌고 오신 오인환 대장으로 부터의 연락이었다. 허영호 선배가 오는 새벽 정상 어택을 시도하고 한국팀이 많이있는 네팔쪽 노르부르도 하산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날 날씨가 무척 안좋아 우리를 비롯 C₂에 진출하여 있는 많은 원정대가 운행을 중지하고 있는터라 영호형과 셀파들의 안전이 걱정되었다. (인환이영 영호형과 나는 같은 히말라야 클럽회원이다) 아무리 관찰을 하고 기다려도 루트상에 점2개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상 등정을 시도하다 티벳쪽으로 내려갔다. 아니면 동반도중...

불안한 생각이 머리를 스쳐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4월14일 오전중에도 두사람의 모습은 루트상에 보이지 않았고 티벳과의 무선교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모두들 불안해

를 알아보지 못했다.

내가 고글을 벗으면 "형 나야, 하는 순간 그는 나를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나 죽는줄만 알았어, 살려고 피캠프 버리고... 산소가 떨어져 있어 알아보여 엉덩이를 깔고 미끄러져 내려와 우모바지가 다 찢어졌다", "형 미쳤어 그러길래 왜 이런 날씨가 넘어와" 죽을과 삶을 넘나드는 사나이들민의 가슴 뭉클한 대화가 오고 갔다.

4월15일 영호형에게 다운조끼와 오버슈즈를 빌리고 B.C로 떠나 보내며 한편으론 부러운 감정이 솟아났다.

나도 이 지극히귀한 동반을 끝내고 여서 하산하여 사망하는 가족품에 안기고 싶었다. 그럴수록 마음을 굳건히 해야 했기에 우리는 이날 1차 정상공격 계획을 잡았다. C₂루트공작을 하여 바로 어택을 실시 하지는 내 특유의 속공전략을 채택했다.

4월16일 C₁에 공격 준비를 위한 짐수송을 마치고 17일 나



(사진노) B·C의 전경, 뒷편에 눈이 쌓인 아이스콜 지대가 보인다. (사진노) BC에서 라미제를 지낸후 셀파등 전대원이 촬영.

8면에서 이어짐

와 안전설대원은 캠프2를 출발 캠프3에서 일박하였다. 고소작용을 위해 단계적으로 고도를 높이는 전략의 일환이었다. 18일 안전설대원이 작업이 안돼 나온후 셀파들과 함께 캠프4로 올라갔고 이튿날 가장 어려운 루트인 길리와 30m 직상크레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친신만고 끝에 캠프5지점에 도착했다. 셀파와 나는 캠프5지점에서 비박(노숙)을 감행하고 다음날 새벽의 정상공격을 위해 룩밴드(8,300m-8,500m상의 트레마스구간)상에 약 150m 거량의 고정로프 설치 작업을 해나갔다.

첫 출발시의 루트 킨디션 상태는 꽤 좋아보였다. 그러나 150m의 고정로프를 설치하는 순간부터 사정은 달라졌다. 엄청난 눈보라가 몰아닥쳐 한지않도 내다볼수없는 지경이었다. 눈물을 머금고 캠프4를 철수했고 급기야 이튿날 캠프2로 돌아올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친계지변이 없는 90%의 성공을 감당할수 있는 상황이었고 재도전을 단념했다. 에베레스트의 여신은 결코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이 있었다. 그날부터 10여일간 계속 눈보라가 몰아쳤다. 모든 원정대가 BC로 철수하였고 우리 또한 김진성 남원우 대원을 제외하고 모두 BC로 철수하였다. 지독한 악천후가 계속되었다. 오전에 가류 구름이 깔렸으나 오후엔 되던 어둠이 짙어져서 쏟아졌고 14개나 되는 모든 원정대는 하늘만 원망하여 분투를 심했다. 난세 탓만하며 이내도 주저앉을 수 빌은 없다.

5월11일 등반 제도권을 게시했다. 고소적응도가 좋아지고 대원들 킨디셔도 좋아 캠프2

을 이루어 갈라진 틈)부분에 선 아예 로프가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부터 알파인스타원(속강등반)을 진행, 캠프5지점까지 도란데 먼저 포진시켰던 박스텐트(박스형의 텐트를 벽같은 설사면에 설치 용이)를 세우고 1차정격 망시 깔아놓았던 150m 고정로프 파내기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10여일동안 내린 진설(마른눈)로 인해 발걸음 떼기가 곤란한 지경이었고 작은 눈치태가 계속돼 진행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졌다. 불가능은 없다는데는 각오 아래 로프 끝나는 지점에서 100m 고정로프 설치 작업을 더 하였으나 상상을 초월한 악조건하에서 더 이상의 등반은 죽음을 부를 뿐이라는 판단을 내려 눈물을 머금고 캠프2로 돌이킬 수밖에 없었다. 작전상의 후퇴가 아니라 거대한 자연의 명령이었다.

어떻게 다시 찾아온 에베레스트인가에서 그만 들수는 없다. 우리에게 조종없는 도움을 주신 고마운 분들을 위해 세계최고봉에 불상, 동원발원



▲'일한 정상사진. 원편 작은 불우리가 에베레스트 정상으로 정상직접 남봉에서故人설대원의 모습

많은 인력이 요구됐고 6-7개 원정팀 대장들의 합의로 5월 16일 정상공격 D-Day가 잡혀졌다. 우리는 사기 진작을 위해 정상공격에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대원을 동참시킨다는 결정을 내리고, 나, 김진성, 안전설 김태곤대원이 어택조에 가담하였다.

5월14일 비교적 킨디션이 나쁜 김진성 김태곤대원이 먼저 C₂로 향하고 나와 안전설은 15일 C₂를 출발 하루만에

급방이라도 쓰러져 죽을 것 같았다. 사람들이 내얼굴에 산소마스크가 없는것을 보고 저마다 한마디씩 격려와 찬사를 아끼지않았다. 역시 산악인들의 마음은 한결 같다고 느꼈다. 1시30분경 에베레스트 정상에 섰다. 그로서 부산소동정을 해낸것이다. 그러나 기쁨은 잠깐 아득한 하산에의 고행이 뇌리를 스쳐갔다. 정상에 불상과 통일을 기원하는 발원문을 봉안하고 간단한 사진

미끄러지던 나는 술을 삼키고 제동을 걸고 죽을 힘을 다해 사활의 싸움을 수없이 반복했다. 정신이 점점 몽롱해서 이렇게 내려가려는 몸다 죽을것만 같았다. 사우스콜이 뻗히 내려다보이는 해발 8,400m쯤에서 나는 진섭이에게 혼자 유민하냐고 물어보았다. 이에 진섭이는 괜찮다고 하여 저기 보이는 사우스콜까지 천천히 내려가 내려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진섭이는 힘에 겨운지 설사면상에서 미끄러져 뒤에서 '앗'하는 비명이 들려왔다. 미끄러지는 속도에 속구쳐 나온 바위에 부딪혀 온몸이 튀어올랐다. 생각할 겨를도없이 진섭이를 받아안았다. 새산의 갈림길에 섰다. 나는 매순간셀파와 함께 진섭이를 후려갈렸다. 경각심을 가지라는 일종의 경고였다. 또 지루한

루트바뀐 오기로 무산소 登頂시작

10여일간 계속된 積雪... 눈물머금고 B·C로 후퇴 生死같이한 후배의 죽음 山行으로 보답

문 봉안을 끝내 해내고 싶었다. 이종량대장과 협의끝에 남봉봉으로 루트를 바꾸고 등반을 다시 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날 김형우대원은 루트변경 작업을 위해 카투만두 광광으로 남아있고 우리는 B, C로 진원 철수하여 제력회복에 다시 나섰다. '오기발동, 루트변경도 역을하데 7냥 나설수밖은 없었다. 나는 C₂로 올라와 무산소등반을 결

1,500m를 뛰어넘어 C₂에서 지난 출발한 동료들과 합류하였다. D-1, 15일 밤1시 우리는 간단히 마식기투를 타먹고 16일01시20분 정상어택에 나섰다.

네기 먼저 셀파들을 데리고 출발하였다. 단독 무산소등반이었으므로 등반속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 나 먼저 출발 하였음 01시40분 김진성군, 03:00 안전설, 김태곤군 출발, 막힌 숨을 헐떡거리며 한걸음 걸다보니 신두대원에 끼여있었다. 뒤를 돌아보니 사우스콜까지 이어지는 희뿌연 랜턴불빛이 시야에 들어왔다. 아침7시경 오른쪽 능선에 붙어 남봉을 향해 끊임없이 기어 올랐다.

이 능선이 언제 끝나리나 지리한 등반, 산소결핍에 하늘이 노랗고 눈이 빨개 보일 지경이었다. 내앞에 10-20분 거리에서 인도사다(셀파우두머리)와 대원 한명이 죽을 힘을 다해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그들로부터 또다시 용기를 얻었다.

12시30분 남봉에 올라섰다. 셀파가 가지고온 에비산소를 이곳에 놓아두었다. 약 10분 간격으로 진섭이와 태곤이가 뒤따랐다. 그들의 산수는 약 20-30Bar (5분가량유지가능) 밖에 남지않았다. 진섭이는 에비산소를 태곤이는 다른 팀이 놓고간 산소를 슬쩍하여 양심에 찔리기는 하나 불가항력이었다-같이끼었다 남봉에서 2-3분 올라갔을까, 정상에 눈앞에 보이고 뒷지에 힐러리스텐(약100m되는 직벽)에 약 20명 안팎의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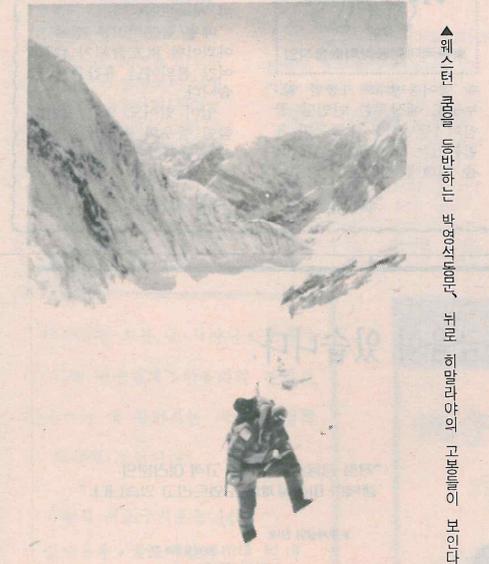
이때부터 알수없는 에베레스트 날씨가 변덕을 부리기 시작했다. 바람이 심하게 불고 기온이 부쩍 떨어졌다. 아랑곳 하지않고 10여m를 제때게 뛰어올랐다. 산소부족으로

활영을 마치고 약천후에 쫓겨 하산을 서둘렀다. 한걸음 내려오다 뒤를 바라보니 진섭이와 태곤이가 한참 뒤쳐져 있었고 진섭이가 힐러리스텐 위에서 구조진조(원호를 그려 표시)를 보내오고 있었다. 산소가 떨어져 코소츄세가 나타난 것이다. 마음은 급하나 나자신도 무산소등반을 감행해 누구를 도와줄 여력이 없었다. 그러나 어찌랴! 진섭이를 그냥 놓고 내려올수는 없었다. 8,700m정상능선에서 오던걸을 되짚어 다시올랐다. 뭐라 말할수 없는 친근의 부제가 발걸음 마다 느껴졌다 힐러리스텐밑에서 진섭이를 만나 그의 안전벨트 뒤에 나의 확보줄을 묶어주고 내려갔다. 고대원형규장의 투사와 사자의 싸움이 이반했을까? 진섭이가

하산이 계속되었다. C₂에서 일박한후 그가 없어진것을 알았다. 길을 잘못들어 사우스필라쪽으로 내려갔던것이다. 이튿날 아침 수색작업끝에 그의 썩어빠진 시체를 발견했다. 북받쳐오는 설움에 오열이 폭발했다. 같은날 위우도 에베레스트에 젊은 영혼을 던졌다.

억울해 울고, 슬퍼서 울고, 분통해 울고... 살아남은 대원들은 뼈저린 아픔에 소리없는 눈물을 한없이 흘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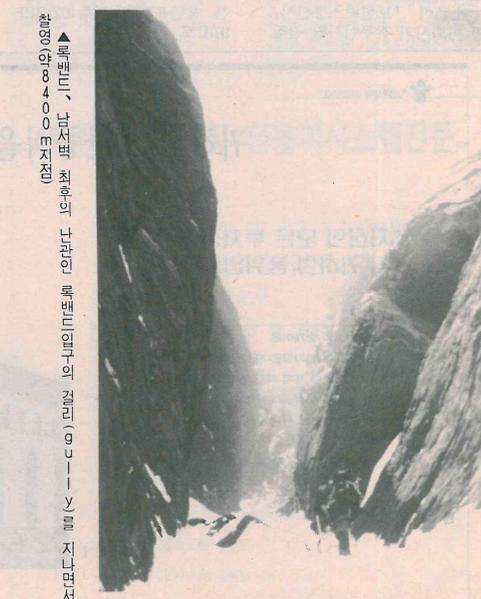
고달랐던 에베레스트 대장정 90일 설산에 동료들의 뼈와 혼을 묻고 대원포함의 가슴엔 커다란 대못이 하나 박혔다. 예들아! 살아있는 부끄러운 형이 너희들의 고귀한 넋을 달랠 멋진 산행을 꼭 해보아리라 영전에 약속한다.



▲북산대원 김태곤이 남봉에 오르다. 김태곤은 남봉에 오르다. 김태곤은 남봉에 오르다.

계곡을 한번에 뛰어넘었다. 그러나 10일간의 적설로 그전에 같아 놓았던 고정로프가 모두 두 눈속에 파묻혀 캠프4 이상의 루트 진출이 불가능했다. 단이틀간 고정로프 파내기 작업에 열을 올렸고 만약 로프를 파내지 못한 경우 캠프4이상에서부터 속강등반으로 정상을 넘보기로했다. 하지만 8,100m부분 걸리(바위가 험곡

심했다. 91-92동계등반에 남봉으로 8,700m까지 산소없이 등반한 경험이 있었다. 남봉 루트에 꽤많은 등반대가 몰려있었다. 그러나 그쪽 루트도 만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10여일간 내린 폭설로 허리까지 빠지는 산사면 적설이 최대의 적이었다. 따라서 여러 등반대의 협력이 요구됐다. 이른바 러셀(눈을 다지는 작업)에



▲에베레스트, 고전적 등반의 극한인 에베레스트의 정점(8848m)까지 오르는 모습

私財털어 옹기박물관 개관

丁炳樂동문 문화재단 옹기 2,500여점 展示



우리나라 최초의 옹기박물관이 열성적인 東國人에 의해 개인적으로 운영, 전시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30여년간 전국을 누비며 옹기를 수집해 온 丁炳樂동문(67 경행·(주)금성사무기 대표)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그동안 모은 250여종 2,500여점의 옹기를 일반인에게 공개·전시하고 있다.

사재를 털어 세운 지허충, 지성3중, 연건생 2백평규모의 박물관중 2개층 1백여평에 차려진 옹기 전시관에는 물동이, 뚝배기, 시루, 등잔대를 비롯 보리쌀을 씻는 자레기, 소주를 만드는 소줏고리, 식초를 만드는 초병, 조왕단지,



양념5단지, 도가니, 태(胎)항아리등 갖가지 옹기가 전시되어 있다.

그중에는 조선中期로 추정되는 산수화 문양이 새겨진 왕실전용 쌀독인 어미(御米)독, 大院君의 박해를 피해 산에 들어간 친주교인들이 굴뚝위에 은밀히 교회표지를 한 십자연가(十字煙家) 등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것도 상당수 있다.

또 조선후기 임금의 하약을 달이는데 사용한 옷질된 약탕관, 지라모양의 연적, 용무늬가 앙락된 수저통, 새가 조각된 저금통, 조선중기때 임금이 음식을 데우는데 사용한 방황부늬 화덕, 조선말 남원기생들이 바자 마추는데 쓰던 부(缶), 구한말 무당들이 토속무신으로 모신 李舜臣장군상 등 희귀한 옹기가 즐비하다. 조선말 옹기장수들이 청상

파루에 선물로 주었다는 식초병에는 남성의 심혈이 조각돼 있다.

박물관에는 옹기전시관외에 丁동문이 모은 가마, 물레, 다듬잇돌, 절구통, 삿갓, 들새수대야, 들독등 5천여점의 민속자료를 갖춘 민속전시관은 준비되고 있다.

丁동문이 옹기를 수집하게 된 것은 在學시절 한일학교정상화반대시위를 주도한뒤 강원도에서 피신생활을 하다 옹기가 사라져가는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활용품중 가장 한국적인 냄새가 나는 옹기가 모두 사라져버릴것 같다는 두려움이 들었다"는 丁동문은 그후 30년간 전국각지의 옹기를 모으기 시작했고 청계천·아현동 일대의 필동품 상가를 뒤졌다.

옹기의 체계적 연구를 위해 모교 교육대학원에 입학한 丁동문은 현재 역시교육을 전공하며 「한국옹기문화의 재조명」이라는 석사학위를 준비하고 있다.

新진안내

산문집 「未堂산문」

徐廷柱동문



▲徐廷柱 동문(35 중북)이 최근 젊은 문학도들을 위해 散文의 미학을 보여주는 「未堂산문」을 출간했다. 未堂의 삶과 문학을 散文으로 고백한 이 책은 문학을 지망하는 젊은이들에게 재주보다 정신의 自由라는 바탕위에 글을 쓸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日本영화 이야기」

俞賢穆동문



▲원로영 화감독이자 모교 명예교수인 俞賢穆(49 문과) 동문이 일본의 서정인 영화평론가인 사토 다다오씨가 「日本영화이야기」를 번역 출간했다. 이 책은 일본영화의 전개과정을 시대별 특징에 따라 설명하면서 구로지의 이키라등 대표적 영화감독의 최근작품등

을 소개, 일본영화의 이해를 돕고 있다.

소설 「석가모니」

李炯基동문

▲제1회 공초문학상을 수상한 李炯基동문(56 불교·모교교수)이 시단생활 43년만에 처음으로 쓴 소설.

문단 등단사상 17세라는 최연소기특모유자(?)인 李동문은 경건과 불교기본교리를 바탕으로 현대인들이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부처님의 일생을 소설화한 것.

「겨울 나이가아라」

曹廷大동문



▲64년 모교 구본과를 졸업한후 교편을 잡았던가 75년 캐나다로 이주한 曹廷大 동문이 그동안 교포신문에 발표해온 자신의 시를 모아 「겨울 나이가아라」라는 詩集을 펴냈다.

在게나나 한국문인협회 회장, 온타리오 한인 실업인 협회 회장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활동을 펴 내 曹동문은 이책의 신간대회를 통해 교류가 끊겼던 동문생들과의 연락을 바란다고...(연락처 : 本會문의바람)

보험 팩스통신을 아십니까?

鄭性烈동문 맹활약



팩시밀리로 각종 보험정보를 판매하는 팩시정보판매업을 아십니까?

신중사업으로 각광받고있는 팩스정보판매업이 국내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보험업에 동향과 마켓팅 정보등을 팩시밀리로 제공하는 보험팩스사업에 맹렬히 활동중인 東國人이 있다.

社名이 「보험팩스통신사」인 이회사의 전무이사겸 편집

주간인 鄭性烈(77 연영) 동문은 東國人을 위해 보험정보의 편의시 정성껏 도우셨다고 공언.

기립회원들에게 주5회 전송되는 보험팩스통신은 국내보험업계 최신 동향, 신상품 정보, 소비자 여론조사등을 담고 있다.

앞으로 부대사업으로 月刊 「영업소장시대」를 발간하고 각종 보험정보를 분류한 데이터베이스망을 94년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라고.

보험팩스통신의 가입에 따른 제반문의는 전화(02)319-9781로 하면 된다.

“아픈소리 못하는 사무국”

아픈소리 못합니다.

○...6월15일 정기총회이후 선임회장인 黃明秀회장은 각급단위 임원의 선임과 잇따른 모임을 통해 결속과 東國發展에 동참을 호소하며 왕성한 활동력을 과시해...

모교에 35인승 BUS기증, 회장회비 1,200만원 납부, 고무단 회의, 회장단회의, 감사및 분과위원장회의, 운영위원회 조찬등 매월 계속되는 모임의 비용을 상견례임을 강조하며 본인께서 직접 부담까지하기도...

덕분에 더욱 바빠진 본會 사무국의 세직원들, 비록 몸은 힘들지만 黃회장님보다 젊은 본동동문들 정작 앓는 소리는 못하겠더라.

慎동문께 박수를...

○...라틴게이아저씨에게 고난보다 강하다.가 중보관이 출간되어 회제. 不惑의 나이에 영어를 배



워 영어공변대회 1총만 열, 누구도 예상 못한 안민당 공천의 1동당선등 慎동문의 옥필원고는 3D현상에 물든 요즘 세태에 경종을 울려주는

“休刊, 그저 죄송할 따름”

주축삼은 내용들.

TV에 소개된 후 노사관계가 불편한 사업장, 학교, 기업체등에서 교대로 활용하는 등 베스트셀러의 대열에 당당히 입성. 本동동문들 10萬 동문과 함께 慎동문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有口無言입니다

○...이 원고의 끄트머리에 서 本동동문들 우선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

매일 동문여러분 곁에 찾아뵙아할 東友會報가 4개월여간 본의아닌 휴간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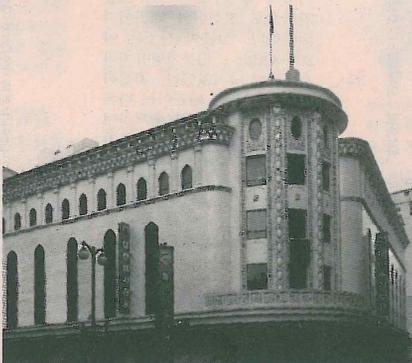
일이 있어도 말을 못할까를 믿은 동우회 편집진들은 다시는 휴간없이 동문여러분을 찾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귀하의 재산증식을 위해 저희 대한투자금융이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투자상품은 곧 귀하의 품위입니다.”

- 고 수익성의 증개어음
- 오랜 전통의 인기상품 자유금리 CP
- 새롭고 편리한 포지 베틀링, 포지 무어어음
- 안전한 시장 실세금리 CD
- 간편하고 안전한 직적증권
- 입출금이 자유로운 CMA

* 단 하루를 맡겨도 높은 수익을 드립니다.



“저희 금융전문가들이 고객 여러분의 행복과 미래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상담 안내
본 점: (대 포) 771-9000 명동대기리
(상남실) 777-4491

▶전화정보 서비스
전화요금무료: (클로버서비스) 080-023-9000

▶On-Line 서비스
무통정입금: 가까운 은행의 On-Line 구좌를 통해 항상
예금 및 인출을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화합과 단결로 新東國 건설

제17차 定期總會 이모저모

지난15일 엠베서더호텔에서 열린 제17차 정기총회는 東國의 단합과 발전을 기약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식순에 따라 단상에 오른 정재철전회장은 「동창회, 학교 재단등이 삼위일체가 되었기에 재임기간중 대과없이 모교발전과 오랜속원이었던 동창회관, 각 기금의 정착등을 이룰수있었고 이로써 뜻은 오직 여러분의 성원이였다.며 감사의사를 나타낸 퇴임의 변을 밝힌뒤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동국대동창회는 합심해서 신입 황명수회장이 일할수 있는 힘을 주자고 역설했다 민병철모교총장은 퇴임하는 정재철회장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신입 황명수회장에게 거는 학교측의 기대가 크며 「학교를 위해 계속적인 애정과 지원을 부탁하는 동시에 동창회를 위해 학교에서 협력할수 있는것은 적극 돕겠다고 축사를 마무리.

계속되는 경과보고(장수정 사무국장)와 결산보고(남기일

감사, 결산보고(김동정 부회장) 등은 약속고나 유인플래체등으로 통과되었고 곧바로 이남의 하일라이프인 회장추대의 순서로 들어갔다.

회장추대에서 정재철전회장은 지난55차 정기이사회에서 황명수동문은 17대 회장으로 선임된바 있다는 간략한 경과보고와 함께 「제17대 회장에 황명수동문을 선임합니다.라며 참석자들의 열띤 환호와 박수속에 의사봉을 3번 타봉, 정식선포 했다.

총회장이 떠나갈듯한 박수속에 단상에 오른 황명수신임회장은 모교 학군단기수단에 의해 입장한 동창회기를 정재철전회장으로 부터 넘겨받자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동창회기를 힘차게 휘둘렀다.

이어 모교여학생회에서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뜻의 꽃다발을 증정하자 정재철전회장과 황명수신임회장은 나란히 손을 잡고 동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뜨거운 박수속에 걸죽한 충정도 사무리로 취임인사를 시작한 황명수회장은 「신후배 동문여러분이 만장일치로 선출해준데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가슴에 간직하며 새동국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맹세했다.

이어 황회장은 지난20년간 동창회 발전의 축석을 다진 최재구, 정재철회장의 전광루에 같이 감사드린다고 말한뒤 「학교, 교수, 이사진, 동문들이 모여 재학생대표들과 지리를 같이하고 서로 이해하고 양해하면 동국대는 발전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황회장은 또 「앞으로 동창회, 학교, 재단, 학생들의 4위가 균건히 서서 모교가 발전했으면 좋겠다.면서 자신의 취임공약으로 먼저 「대통령공약 사항이었던 불교종헌병원의 건립을 위해 학교재단의 회계사 부근이나 일산의 부지를 녹

92, 93 會計年度 決算 收支표

〈수입〉			
항 목	예 산 액	92'결산액	93'예산액
전기이월금	2,282,341	2,282,341	3,518,579
회차입분담금	3,000,000	1,000,000	20,000,000
년 회 비	10,500,000	8,249,698	25,000,000
이 사 회 비	30,000,000	27,450,000	29,000,000
상무이사회비	15,000,000	14,600,000	16,000,000
광 고 료	17,000,000	12,720,000	18,000,000
수 입 이 자	100,000	230,236	200,000
기 금 보 조	25,000,000	16,024,811	0
기 타	8,067,659	20,384,344	5,381,421
합 계	110,950,000	102,941,430	117,100,000

〈지출〉			
항 목	92'예산액	92'결산액	93'예산액
회 의 비	1,300,000	961,900	2,000,000
조직강화비	4,500,000	4,300,200	4,000,000
경 조 비	7,000,000	6,770,000	7,200,000
회보간행비	28,000,000	25,473,580	31,500,000
정 회 료	4,500,000	3,452,000	0
고시화사지원금	5,000,000	5,000,000	0
재학생보조금	2,000,000	0	2,000,000
인 건 비	20,400,000	22,900,000	31,200,000
상 여 금	5,200,000	5,600,000	8,000,000
활 동 비	7,200,000	7,200,000	0
교 통 비	3,400,000	3,339,300	1,200,000
출 징 비	1,000,000	1,100,000	2,400,000
인 쇄 비	1,500,000	1,440,000	2,000,000
통 신 비	4,000,000	3,802,180	4,200,000
소 모 품 비	1,300,000	1,478,876	1,500,000
수 수 료	150,000	149,900	200,000
예 비 비	5,000,000	942,848	4,000,000
주 크 료	500,000	406,500	600,000
사무실 관리비	9,000,000	6,965,567	11,500,000
목적지입금	0	0	3,600,000
차기이월금	0	3,518,579	0
합 계	110,950,000	102,941,430	117,100,000



▲수고와 추대의 뜻이 담긴 꽃다발 증정 모습

- | | | | | | | |
|------------------|------------------|------------------|------------------|------------------|-------------------|----------------------|
| ▲박성부 (68경회) = 15 | ▲이종호 (66상학) = 15 | ▲권순안 (89억교) = 15 | ▲강석문 (72행정) = 15 | ▲이태경 (67통계) = 15 | ▲김원수 (81국문) = 15 | ▲박정도 (77행정) = 15 |
| ▲신광규 (91법학) = 15 | ▲이현수 (61인학) = 15 | ▲한정섭 (89경원) = 15 | ▲임동규 (71농학) = 15 | ▲박 준 (88행원) = 15 | ▲김봉석 (58경계) = 15 | ▲김택우 (83경계) = 15 |
| ▲정재창 (88행원) = 15 | ▲차정진 (91경원) = 15 | ▲강신범 (83사제) = 15 | ▲김삼용 (80통계) = 15 | ▲김선규 (65경원) = 15 | ▲박정제 (60) = 15 | ▲유영경 (87회계) = 15 |
| ▲유성욱 (87회계) = 15 | ▲이성재 (80법학) = 15 | ▲안병민 (82잔장) = 15 | ▲조태학 (92행정) = 15 | ▲안문목 (55경원) = 15 | ▲김영남 (81 통계) = 15 | ▲박성희 (86경원) = 15 |
| ▲서정식 (76행원) = 15 | ▲정경호 (88경문) = 15 | ▲이대현 (73인철) = 15 | ▲문경호 (86경원) = 15 | ▲양계자 (79경원) = 15 | ▲강대성 (87부역) = 15 | ▲김영복 (61법학) = 15 |
| ▲표규일 (65농학) = 15 | ▲이동하 (87학원) = 15 | ▲이택수 (70경계) = 15 | ▲이양우 (66경계) = 15 | ▲임태규 (59경계) = 15 | ▲문현제 (80행원) = 15 | ▲김영복 (78사회) = 15 |
| ▲송서래 (57국문) = 15 | ▲이상영 (73경원) = 15 | ▲정봉지 (90지인) = 15 | ▲정봉지 (90지인) = 15 | ▲신근상 (82농경) = 15 | ▲박만식 (85경원) = 15 | ▲이재필 (84회계) = 15 |
| ▲유도준 (61법학) = 15 | ▲고영종 (62경계) = 15 | ▲문승업 (58철학) = 15 | ▲문승업 (58철학) = 15 | ▲이정기 (88행원) = 15 | ▲이인선 (76화공) = 15 | ▲김경근 (60경계) = 10 |
| ▲조선배 (89경계) = 15 | ▲주영취 (65경계) = 15 | ▲이영식 (71법학) = 15 | ▲이영식 (71법학) = 15 | ▲강대남 (88불교) = 15 | ▲오상홍 (58법학) = 15 | ▲박기영 (69법학) = 15 |
| ▲윤영두 (63법학) = 15 | ▲최홍길 (62경계) = 15 | ▲양기태 (88회계) = 15 | ▲양기태 (88회계) = 15 | ▲김용성 (63경계) = 15 | ▲김용성 (63경계) = 15 | ▲김승기 (73경계) = 15 |
| ▲박종석 (71경회) = 15 | ▲방용민 (69경문) = 15 | ▲정철우 (78행정) = 15 | ▲정철우 (78행정) = 15 | ▲홍후권 (85경원) = 15 | ▲고경찬 (85경계) = 15 | ▲박사근 () = 10 |
| ▲남경우 (67인학) = 15 | ▲김재철 (84경원) = 15 | ▲이준성 (77행원) = 15 | ▲이준성 (77행원) = 15 | ▲공삼진 (53법학) = 15 | ▲배진현 (87경원) = 15 | ▲이진원 () = 20 |
| ▲한영석 (58법학) = 15 | ▲김연철 (84경원) = 15 | ▲정순봉 (59법학) = 15 | ▲정순봉 (59법학) = 15 | ▲김완화 (88한외) = 15 | ▲고안연 (63경원) = 15 | ▲호수개호 = 20만원 |
| ▲정재구 (70통계) = 15 | ▲김연철 (84경원) = 15 | ▲송재우 (83법학) = 15 | ▲송재우 (83법학) = 15 | ▲윤석우 (74행원) = 15 | ▲조재영 (85국문) = 15 | ▲美시카호支會 = 392, 675 원 |
| ▲김은근 (75경원) = 15 | ▲최기철 (69국문) = 15 | ▲김재수 (90국문) = 15 | ▲김재수 (90국문) = 15 | ▲정경식 (90경계) = 15 | ▲최창욱 (90한외) = 15 | ▲美시카호支會 = 392, 475 원 |
| ▲서서경 (경원) = 15 | ▲김현수 (92수고) = 15 | ▲최창욱 (67법학) = 15 | ▲최창욱 (67법학) = 15 | ▲황승홍 (92지인) = 15 | ▲김광수 (82철학) = 15 | ▲美시카호支會 = 392, 475 원 |
| ▲오용환 (54경문) = 15 | ▲김광호 (86도공) = 15 | ▲송대남 (66농경) = 15 | ▲송대남 (66농경) = 15 | ▲김준호 (76전공) = 15 | ▲김상배 (72경계) = 15 | ▲美시카호支會 = 392, 475 원 |
| ▲양기석 (84화공) = 15 | ▲김용주 (90수학) = 15 | ▲이영순 (93지인) = 15 | ▲이영순 (93지인) = 15 | ▲홍근표 (60법학) = 15 | ▲박상근 (77경계) = 15 | ▲美시카호支會 = 392, 475 원 |
| ▲김종민 (69행원) = 15 | ▲김홍주 (90수학) = 15 | ▲이민진 (56경계) = 15 | ▲이민진 (56경계) = 15 | ▲오정희 (72경계) = 15 | ▲박재식 (63인학) = 15 | ▲美시카호支會 = 392, 475 원 |
| ▲황선규 (73통계) = 15 | ▲김홍주 (90수학) = 15 | ▲박영선 (74행원) = 15 | ▲박영선 (74행원) = 15 | ▲우정철 (69경계) = 15 | ▲이종도 (87행원) = 15 | ▲美시카호支會 = 392, 475 원 |
| ▲유중근 (72잔장) = 15 | ▲김홍주 (90수학) = 15 | ▲김영운 (83경원) = 15 | ▲김영운 (83경원) = 15 | ▲사정택 (71상학) = 15 | ▲권동진 (85시공) = 15 | ▲美시카호支會 = 392, 475 원 |
| ▲손태구 (88한외) = 15 | ▲김창규 (84법학) = 15 | ▲고순태 (71상학) = 15 | ▲고순태 (71상학) = 15 | ▲김동성 (80경원) = 15 | ▲김동성 (80경원) = 15 | ▲美시카호支會 = 392, 475 원 |
| ▲김의중 (56경계) = 15 | ▲김상욱 (71경계) = 15 | ▲최영남 (65국문) = 15 | ▲최영남 (65국문) = 15 | ▲이수택 (76행원) = 15 | ▲박성환 (61경회) = 15 | ▲美시카호支會 = 392, 475 원 |
| ▲여상식 (82회계) = 15 | ▲김재현 (87경계) = 15 | ▲한광식 (85한외) = 15 | ▲한광식 (85한외) = 15 | ▲김용필 (85경원) = 15 | ▲이철호 (61법학) = 15 | ▲美시카호支會 = 392, 475 원 |
| ▲변동윤 (60법학) = 15 | ▲최기철 (69국문) = 15 | ▲현승유 (72경계) = 15 | ▲현승유 (72경계) = 15 | ▲김광수 (82철학) = 15 | ▲송달용 (58농학) = 15 | ▲美시카호支會 = 392, 475 원 |
| ▲나병인 (85경계) = 15 | ▲김재현 (87경계) = 15 | ▲장세기 (59상학) = 15 | ▲장세기 (59상학) = 15 | ▲김광수 (82철학) = 15 | ▲이명우 (61국문) = 15 | ▲美시카호支會 = 392, 475 원 |
| ▲정재훈 (89화공) = 15 | ▲김재현 (87경계) = 15 | ▲정은표 (78경원) = 15 | ▲정은표 (78경원) = 15 | ▲김광수 (82철학) = 15 | ▲김광수 (82철학) = 15 | ▲美시카호支會 = 392, 475 원 |
| ▲김재욱 (56경계) = 15 | ▲김재현 (87경계) = 15 | ▲정영호 (87한외) = 15 | ▲정영호 (87한외) = 15 | ▲김광수 (82철학) = 15 | ▲김광수 (82철학) = 15 | ▲美시카호支會 = 392, 475 원 |
| ▲하한우 (48惠傳) = 15 | ▲김재현 (87경계) = 15 | ▲신경훈 (74법학) = 15 | ▲신경훈 (74법학) = 15 | ▲김광수 (82철학) = 15 | ▲김광수 (82철학) = 15 | ▲美시카호支會 = 392, 475 원 |
| ▲안재호 (87한외) = 15 | ▲김재현 (87경계) = 15 | ▲이근우 (64국문) = 15 | ▲이근우 (64국문) = 15 | ▲김광수 (82철학) = 15 | ▲김광수 (82철학) = 15 | ▲美시카호支會 = 392, 475 원 |
| ▲김정만 (72경회) = 15 | ▲김재현 (87경계) = 15 | ▲이일환 (89행원) = 15 | ▲이일환 (89행원) = 15 | ▲김광수 (82철학) = 15 | ▲김광수 (82철학) = 15 | ▲美시카호支會 = 392, 475 원 |
| | | ▲여환준 (71법학) = 15 | ▲여환준 (71법학) = 15 | ▲김광수 (82철학) = 15 | ▲김광수 (82철학) = 15 | ▲美시카호支會 = 392, 475 원 |

참석동문 저마다 東國發展 다짐

黃회장 公約마다 박수로 호응

지에서 풀어야 하며 실현가능한 것 부터 하나씩 풀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회장은 모교 체육부 전용의 35인승 버스 기증과 회장회비로 2천만원을 6月末까지 납입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새로운 희망과 도약을 위해 많은 동창과 더불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석동문들은 황회장의 공약에 일표필담마다 큰 박수로써 호응했다.

배중대 동문의 발의로 황명수회장에게 다시 일임된 신입 회장단 및 감사선임은 황회장이 「전임회장들 7~8명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며 재창, 삼장을 거쳐 통과했다.

총1억1,710만원의 93년도 예산인과 사업계획안은 「지난 55차이사회에서 충분히 심의한바 유인플로로 대체하자.는 김규태동문의 발의로 승인되었고 고가제창에 이어 기타사항에서는 지방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지방을 방문해달라.는 대구지부의 김상준동문의 요청을 황회장은 즉석에서 수락하는 등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날 총회는 특히 울산 지역개발대학원 동문회의 김정원, 천안지부의 권원옥 대구지부의 신영남, 김성준, 대전지부의 조은구, 경주지부의 공재홍, 박광도, 조종훈, 인천지부의 김영희동문과 국회동문회 이진상, 권혁정동문이 각지부회의의 대표로 참석해 화합된 분위기를 보였다.

총1억1,710만원의 93년도 예산인과 사업계획안은 「지난 55차이사회에서 충분히 심의한바 유인플로로 대체하자.는 김규태동문의 발의로 승인되었고 고가제창에 이어 기타사항에서는 지방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지방을 방문해달라.는 대구지부의 김상준동문의 요청을 황회장은 즉석에서 수락하는 등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날 총회는 특히 울산 지역개발대학원 동문회의 김정원, 천안지부의 권원옥 대구지부의 신영남, 김성준, 대전지부의 조은구, 경주지부의 공재홍, 박광도, 조종훈, 인천지부의 김영희동문과 국회동문회 이진상, 권혁정동문이 각지부회의의 대표로 참석해 화합된 분위기를 보였다.

변호사 김창규 (84 법학)

서초구 서초동 1705 정극BD서관 504호

전화 : 534 - 3281
FAX : 594 - 8657

東國發展의 주체가 모였다

定期總會에서 任員 추대까지... 畫報



▲황명수회장이 민병천 모교총장에게 대형버스 1대 기증서를 전달



(사진上) 자신에 찬 모습으로 BUS기증 회비납부등 공약을 발표하는 황명수회장



▲모교, 재단, 本會의 화합과 발전을 기원하며 케익절단



▲영원한 모교의 상징 白象은 두발을 앞으로 東國발전을 위해 달려 가리라



▲성황이 된 임원추대식(사진 上, 中)과 정기총회(사진下)



▲황명수 회장이 대구의 박진희 고문에게 추대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 뒷쪽의 황용운 부회장이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정성이 담긴 그릇

정성을 담는 그릇”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2期 졸업

성 제 국 한 의 원

원장 이 상 돈

서울시 용산구 갑월동 101-45

전화 793-9848, 795-9848

